

# 국어 작년보다 다소 쉽고, 수학은 고난도 문항 줄어

## 올 수능 난이도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주요 과목인 국어, 수학의 난이도가 대체적으로 평이한 가운데, 수학영역에서는 최고 난도는 줄고, 중난도 문제가 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6월·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였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과 입시전문업체들에 따르면, 수능 1교시 국어 영역은 전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두 차례 치른 모의평가와 비교해보면, 6월 모평과 비슷하거나 쉽게, 9월 모평보다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직전 모평보다는 어려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낮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독서파트 '해결 변증법(4~9번)', '기축통화'(10~13번) 문항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킬러 문항으로 꼽혀 최상위권 순위를 가를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문 길이가 길지 않는 등 수험생 20% 이하만 맞추는 초고난도 문항으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 김용진(서울 동국대부속여고) 교사는 "지난 6월 실시한 모의평가 난이도와 비슷하고 상대적으로 쉬웠던 9월 모평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사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항으로 이번 수능 지문 중 가장 긴 4~9번 문항을 꼽았고, 그중 7번 문항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1

제1교시

## 국어 영역

출수형

11~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독서 이론도 이 한 장의 사진만큼 독서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사진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최장하게 무너져 내린 런던의 한 건물 모습이다. ㉠ 폐허 속에서도 신달 돌이 책을 찾아 서가 있어 선 어둠은 무엇일까? 이들은 갑작스레 닫힌 상황에서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을 것이다. 독서는 자신을 살리고 돌아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며, 독서는 인류의 민낯이자 끝없는 대화이다. 독자의 경험과 책에 담긴 수많은 경험들의 만남은 생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켜 삶을 바꾼다. 이런 의미에서 독서는 자기 생활의 평행이며, 생활의 시간은 길이 사색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어야 한다. 이들이 책을 찾는 것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2. <보기>는 ㉠과 같이 독서하기 위해 학생이 찾은 독서 방법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것은 해법을 찾는 한 방법이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는다.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을 통합한다. 이를 통해 문제를 다각적·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생각을 발전시켜 관점을 재구성하게 됨으로써 해법을 찾을 수 있다.

- ① 읽을 책을 선택하기 전에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겠다.
- ②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대조하면서 검토함으로써 관련된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를 폭넓게 보아야겠다.
- ③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문제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구성할 수 있어야겠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영역 출수형 문제지.

국어 6월 모평과 비슷하거나 쉽고 9월보다 어려워 체감난도 낮지않아 4~9번 문항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듯 수학은 모평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 15·21·22번 고난도 문항으로 꼽아 고난도 문항 줄었지만 중간난도 증가

가장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김 교사는 "10~13번 문항은 지문이 길지 않고 난이도도 있진 않지만, 경제에서 환율이 라는 소재 자체가 갖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형 교사(서울 영동고)는 "문학영역의 난이도가 조금 더 평이한 수준"이라면서 그 이유로 "출제된 7개 작품 중 3개 작품은 EBS와 연계됐고, 두 작품은 거의 직접 연계 수준이었다"고 설명

했다. 이어 "연계가 안 된 4개 작품 중 생소한 작품이 포함됐지만 보기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문제 난이도도 높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오수석 교사(부천 소명여고)는 "6월 모의평가와 비슷했으나, 가장 최근 시험인 9월보다 어렵게 출제돼 이를 고려하면 체감 난이도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위권 변별력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학위권 학생에겐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입시학원가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수능, 금년 6월 모평보다 쉽게 출제됐다"며 "평소 어렵게 출제된 과학기술지문 또한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고, 정보량 또한 매우 작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독서영역은 지문 길이가 짧고 전년도에 비해 쉽게 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1

제2교시

## 수학 영역

출수형

5지선다형

1.  $(2^3 \times 4)^{2^3-2}$ 의 값은? [2점]

- ①  $\frac{1}{4}$     ②  $\frac{1}{2}$     ③ 1    ④ 2    ⑤ 4

3. 등차수열  $\{a_n\}$ 에 대하여

$$a_2 = 6, a_1 + a_3 = 36$$

일 때,  $a_{10}$ 의 값은? [3점]

- ① 30    ② 32    ③ 34    ④ 36    ⑤ 38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교시 수학영역 출수형 문제지.

제됐으며, 수학영역은 연계작품 수는 적지만 낮은 작품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 수능 대비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전학사는 "지난해 수능과 6월 모평보다 약간 쉽게, 9월 모평보다는 어렵게 출제됐다"며 "그러나 지난해 수능 시험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이한 시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2교시 수학 영역의 난도는 평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교협 대입 상담교사단의 김정환 교사(대구 해화여고)는 "수학영역은 6월과 9월 난이도와 비슷하다"며 "기하의 경우 다소 어려웠고, 미적분은 비슷했다"고 분석했다.

고난도 문항은 15번, 21번, 22번 문항을 꼽았다. 김 교사는 "15번 문항은 원

의 성질과 삼각함수를 이용하는 완성형 문항으로, 6월과 9월엔 출제되지 않아 이번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난도 문항의 수는 줄었지만, 중간난도 문항은 증가해, 학생 위치에 따라 체감 난이도는 달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택과목을 분석한 장영일 교사(청주 세광고)는 "확률과통계, 미적분과 기하는 9월과 비슷하게 출제됐고, 확률과통계의 경우 새 유형 문제가 출제돼 당황한 수험생은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적분의 경우 최고난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 교사는 "전체적으로 체감상 어렵게, 9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면서 "시간안배를 잘 한 학생이 문제를 잘 해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대, 정시 모집군 '나군' 변경... 고대·연대는 '가군'으로

## 바뀌는 서울 주요대학 정시

4년제 정시 모집인원 8만4175명 서울대, 탐구영역 표준점수 활용 영어 등급별 감점폭 확대 '주의' 연세대, 의예과 등 전형방법 변경

2022학년도 4년제 대학 정시 모집인원은 8만4175명으로 전년도 8만73명보다 4102명 증가했다.

올해 정시 역시 수능이 주요 요소로 활용된다. 선발인원 8만4175명의 21.9%인 1만5978명을 수능위주로 선발한다. 이어 ▲실기·실적위주 7470명(2.2%) ▲학생부위주(교과) 201명 ▲학생부위주(종합) 347명 ▲기타(재외국민 등)전형으로 179명을 선발한다.

정시모집 군별 모집대학은 ▲가군 18개 대학 ▲가/나군 33개 대학 ▲가/다군 19개 대학 ▲가/나/다군 69개 대학으로 총 197개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모집군별 전형기간은 ▲가군(2022년 1월 6일~13일) ▲나군(2022년 1월 14일~21일) ▲다군(2022년 1월 22일~29일)이다. 합격자 발표는 2022년 2월 8일까지 이뤄진다.

◆서울대 가군→나군으로 변경...자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8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계열, 과학탐구 2개 과목에 동일 분야 I+II 조합 불인정

2022학년도 정시의 특징 중 하나는 모집군의 변화다. 서울대가 올해 정시에서 모집군을 나군으로 변경함에 따라 고려대와 연세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서강대와 이화여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모집군을 이동했다. 경희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도 일부 모집단위의 모집군이 변경돼 지원 시 주의해야 한다.

인문계열에서는 제2외국어/한문이 절대평가로 변경되면서 일부 대학에서 제2외국어/한문을 사회탐구 과목 중 하

나로 대체 인정했던 것이 모두 폐지됐다. 자연계열에서는 서울대, 연세대에 이어 올해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에서도 동일 과목 과학탐구I+II를 응시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 ◆서울대·고려대, 영어영역 영향력 확대... "등급별 감점 폭 커져"

일부 주요 대학은 2022 정시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에 변화를 줬다.

서울대는 전년도까지 탐구영역의 경우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했지만 올해는 표준점수를 활용한다. 이 때문에 탐구 과목별 점수분포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올해 영어의 경우 2등급까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0.5점씩 감점되지만, 3등급은 2점, 4등급은 4점이 감점되는 등 감점 폭이 크게 확대되니 주의해야 한다. 영어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다른 영역으로 보완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년도까지 의예과에서만 실시하던 적·인성면접을 치의학과의 수의예과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점도 달라진 점이다.

고려대도 영어영역의 영향력이 소폭 확대됐다. 전년도의 경우 2등급을 받아도 1점의 감점밖에 받지 않고, 3등급은 3점의 감점이었으나, 올해는 2등급 3점, 3등급은 6점 감점으로 감점 폭이 커졌다.

컴퓨터학과의 경우 예전 계열(수능 응시 유형)로 구분해 인문형, 자연형 각 50%씩 선발하던 것에서, 올해는 자연형 75%, 인문형 25%로 변경해 선발한다.

## ◆중앙대 공공인재학부·경영경제대학, 각각 탐구·수학 비율 ↑... 한국외대, 영어 등급 간 점수 차 ↓

연세대는 대체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의예과와 국제계열의 전형 방법이 변경됐다. 의예과와 국제계열은 1 단계에서 수능 100%(910점)로 모집인원의 일정배수(의예과 2.5배수, 국제계

열 3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 면접(100점)을 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의예과의 경우 전년도에는 인성면접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성적 산출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10% 가까이 점수에 산정되며 중요성이 커졌다.

중앙대는 인문계열 중 공공인재학부와 경영경제대학의 수능 반영 방법을 다르게 적용한다. 기존에는 인문계열의 모든 모집단위에 대해 국어 40%, 수학 40%, 탐구 20%의 동일한 비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는 공공인재학부의 경우 국어 반영비율을 낮춘 대신 탐구 비율을 높였고(5%), 경영경제대학은 수학의 비율을 높였다. 수학 반영비율이 45%로 높은 경영경제대학의 경우 자연계열 수험생들의 교차지원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외대는 자연계열의 경우 지난해 수학을 가형, 탐구를 과탐 응시자로 제한했는데, 올해는 선택과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영어 영역의 등급 간 점수 차이는 인문, 자연계열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특히 자연계열은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0.5점, 1등급과 3등급의 차이도 1.5점밖에 나지 않아 영어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현진 기자